템플스테이도 '선명상' 시대…연내 정식 운영

문화사업단 2026년 계획 발표
치유와 지속가능성에 방점 둬
선명상 특화 사찰 20개소 선정
유네스코 회의서 사찰음식 만찬
인류무형유산 등재 준비 '잰걸음'
35만명 참가…외국인 '최고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에도 '선명상' 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전국에 20개의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사찰을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26년 신년 사업 비전으로 '치유를 통한 국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제시하고 전통불교문화 기반의 콘텐츠를 국민 심신치유·지역상생·글로벌 확산으로 연결되는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1월 28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중점과제를 △전통문화콘텐츠 기반 치유형 문화관광복지 확대 △지역자원 연계 관광콘텐츠 활성화 기반 강화 △외국인 유치 마케팅 강화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통문화콘텐츠 기반 치유형 문화관광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전국 약 20개소의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화사찰을 선정해 연내 정식 운영을 시작하며, 문화사업단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은 "현대인들의 사회적 불안과 스트레스 등 국민 정신건강 함양 증진을 위해 간화선과 현대적 명상을 접목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 대상을 1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2030 청년 세대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돕는 '청춘 템플스테이'를 7~8월에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템플스테이 인력의 직무 기준을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민간자격' 등록을 추진한다. 또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용시설 공간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맞춤형 추천·예약 시스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관광공사,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박람회 홍보를 통해 모객 채널을 다변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도 대폭 개선한다. 글로벌 예약 편의를 위해 OTA(Online Travel Agency) 입점을 추진하고 외국인 특별 템플스테이 주간을 운영해 약 3000여 명의 체험을 지원한다. 특히 31개 외국인 전문사찰을 중심으로 통역 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해 운영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사찰음식의 세계적 가치 확산과 대중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문화사업단은 사찰음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기반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8월 사찰음식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해 음식학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사찰음식 체험 및 만찬 행사를 추진해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며, 향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전략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인 사찰음식 특화사찰을 재정비하고, 지역농산물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2026년은 '치유'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을 공고히 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접근성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 세계인이 찾는 한국 대표 전통문화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템플스테이 운영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총 34만9236명으로 전년 대비 5.10%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는 5만5515명을 기록해 종전 최고치(2019년 50469명)을 경신하며 한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사찰음식 분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지정(2025년 5월)을 기념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에 1만6000여 명이 참여했고, 국제학술 심포지움에는 총 250여 명의 교수·관련 전문가가 참가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배우자 대상 사찰음식 체험 등을 통해 대중 확산과 국제적 교류 확대, 글로벌 문화외교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입증했다.

동국대, '사찰음식' 전문 의학연구소 설립

1월 23일 일산병원서 개소식
동국대 의과대학 의료진 참여
초대소장에 임윤정 내과 교수
"사찰음식 연구 기반 마련돼"



동국대는 1월 23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사찰음식 치유의학 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찰음식을 의학·영영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월 23일 동국대일산병원에서 '사찰음식 치유의학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용해 동국대일산병원장을 비롯해 사찰음식 치유의학연구소장인 임윤정 소화기내과 교수, 진관사 찰중 성돈 스님 등 주요 인사와 사찰음식 연구에 관심 있는 의학자, 영양학자, 미생물학자, 통계학자, 한의학자 등 교수진, 박사급 연구진들과 관련 산업계에서 참석해 연구소 출범을 축하했다.

임윤정 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음식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과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접목해 의학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해 병원장은 축사에서 "사찰음식의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에 깊이 감사하며, 바쁜 일정에도 개소식에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진관사 찰중 성돈 스님은 축사를 통해 "사찰음식은 삶의 방식을 바로잡는 가장 오래된 예방의학이자 인격을 가꾸는 수행의 과정"이라며 "이번 연구소 개소를 계기로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연구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치유의학연구소는 동국대 의과대학 산하 연구소로, 사찰음식의 영양학적 가치와 의과학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목표로 설립됐다.

동국대는 "'사찰음식 치유의학연구소' 개소를 통해 사찰음식의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우수한 의학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라며 "전문 연구를 통해 세계인의 건강 증진과 한국 불교문화 확산과 정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전통 다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추진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 가결
"불교 장례의식 보존에 의미"

한국불교 전통 장례 의식인 '다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026년도 무형유산위원회 합동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조사 대상으로 '전통 다비작법'을 가결했다. 신규종목 조사 대상에는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모필장 △공기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심마니와 약초꾼 습속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통 불교 의례인 '다비 작법'은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한 불교적 세계관과 공동체적 가치관이 집약된 무형유산이다. 의식의 전 과정에는 의례 절차, 공양과 염불, 다비 시설의 조성 방식 등이 체계적으로 전승돼 왔다.

이번 지정조사 대상 선정은 전통 다비 작법이 오랜 세월 동안 사찰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성·학술성·예술성은 물론, 오늘날에도 실제 전승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사)전통다비작법보존회 이사장 무공 스님은 "다비 작법의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조사 대상 지정은 우리 전통 장례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무형유산의 다양성과 깊이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안성 청원사 대웅전'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 1월 23일 공고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건축 양식을 보여 주는 조선 전기 전각인 '안성 청원사 대웅전'〈사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고려 말에서 조선 시대로 이어지는 건축 형식과 시대적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안성 청원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안성 청원사 대웅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1854년(철종5년) 대웅전의 공사 내용을 담고 있는 상량문을 통해 그 이전에 건립된 건물임이 확인된다.

건물 앞면은 기둥 상부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를 배치한 다포계 공포로, 뒷면은 기둥 위에 돌출된 부재와 끝부분을 날개 형태로 조각한 부재(익공)를 함께 사용한 익공계 공포로 구성돼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가지 공포 양식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유산청은 "고려 시대 주심포계 공포가 조선 시대 익공계 공포로 변화·정착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잘 보여 줘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